

## 네코노아나 ~배빵지옥 2화 -한국어

료코전에서의 패배 탓인지 그 날 이후 오리에는 더 이상 링에 오르지 않았고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늦은 오후 귀가를 서두르던 오리에가 지름길을 택해 좁은 골목을 지나가던 때였다. 코너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복면의 남자가 오리에의 복부에 주먹을 꽂아넣는다.

**퍽!**

“윽!”

갑작스런 습격에 당황한 오리에가 눈 앞의 남자들을 향해 일갈한다.

“커억..! 크!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거야?”

도저히 여자 한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눈 앞의 남자들을 경계하며 가방에 손을 집어넣은 순간 등 뒤에서 세번째 남자가 오리에의 양팔을 붙든다.

“아차..!”

**퍼억!** 오리에의 복부에 깊게 박히는 두번째 보디.

“웃..! 부우웁!”

오리에가 입에서 위액과 함께 위장 안의 내용물을 게워낸다. 뿌옇게 희미해지는 시야를 마지막으로 오리에의 의식이 끊긴다.

“아직도 쳐 자는거야? 깨워. 당장.”

“으윽! 크!”

뺨을 두들기는 충격에 눈을 뜨면 그 곳은 어딘가 익숙한 풍경의 사무실이었다.

“겨우 눈을 뜬 모양이네. 공주님.”

“너는..!?”

눈을 뜨면 고압적인 분위기의 여성이 테이블에 걸터 앉아 있다. 이세시마 시즈네. 전 네코노아나의 복서이자 현 네코노아나의 총괄매니저. 오리에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었다.

약 1년전의 네코노아나의 지하복싱링. 오리에가 쓰러트린 상대선수를 발로 짓밟으며 기고만장한 얼굴로 마이크를 쥐고 링 바깥의 이세시마를 도발한다.

"지하 링의 복서들이란게 고작 이 정도야? 날 쓰러뜨리려면 더 강한 선수를 데려와야할거야. 아.줌.마?"

당시의 오리에는 지하복싱링 데뷔 이래 6전 전승무패.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오리에의 도발이 먹혀든지 이세시마의 이마에 핏대가 선다. 그로부터 며칠 뒤 7번째 경기를 가진 오리에는 이번 대전상대의 정체를 알고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여느때와 같은 건방진 얼굴로 상대를 도발한다.

"강한 선수를 데려오랬더니 매니저 아줌마잖아? 있어야할 장소를 착각한거 아냐?"

"흠, 착각하고 있는건 네 년이지. 애새끼가 얼굴 좀 반반해서 띄워준 것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나대? 오늘 단단히 정신개조 해줄 테니 이 악무는게 좋을걸?"

"헤에~ 자신 좀 있나본데 당신보다 한참 어린년한테 쳐맞고 울지나말라구, 아줌마."

아줌마라는 말에 이세시마의 이마의 핏대가 한번 더 올라간다. 시합개시와 동시에 펼쳐지는 오리에의 속공. 초반부터 승기를 잡겠다는 듯 오리에의 펀치러쉬가 이세시마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2라운드가 들어서자 지금껏 봐주고 있었다는듯 전세는 일방적으로 이세시마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후후, 움직이니 읽히는거 같아서 당황스럽지?"

"우쭈대지마! 요행으로 몇 방 맞은것뿐...!"



퍼억!

"우욱..! 커헉..!"

하복부 깊숙히 박히는 보디. 그 저항할 수 없는 위력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위액을 뱉어낸다.



"지금까지의 시합을 보면 여기가 네 약점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어."  
"...어, 어떠려나? 이깟 물주먹. 몇번 얻어맞든 아무렇지도 않거.. 우읍!"  
"언제까지 허세부릴 수 있으려나?"



**퍽! 퍼억! 빠악!**

"읍! 우읍! 우웨엑!"

"상품으로 띄워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좋을대로 냅두니까 기어올라? 넌 이 링의 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오늘 제대로 분수를 깨닫게 해주지!"

머리에 피가 몰린 이세시마가 로프에 몰린 오리에를 연신 두들긴다. 이미 그로기상태가 된 오리에지만 분노섞인 멧펀치는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퍼억!**

"우부웃!"

이내 스트레이트가 오리에의 안면을 부셔 마우스피스가 허공으로 튀어오른다. 6전 전승의 콧대 높던 슈퍼루키가 처참히 짓이겨져 로프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우웃..오웃 우에에..!"

"흥, 망할 애송이가 수고나 끼치고말야."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요?"

링에 올라와 이세시마를 다그치는 붉은머리의 여성. 하지만 오리에의 시야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고? 내가 알기로 저 녀은.. 네... 넌 그런 말할 처지가..."

뭔가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것 같지만 의식이 흐려지며 잘 들리지 않는다. 그 날의 시합에 대해 오리에가 가진 기억은 여기까지였다.

"이런 짓을 하고 용서받을 거 같아?"

"네가 쓸데없이 잠적하니까 이런 강경책 밖에 취할 수 없잖아. 안 그래?"

뻘뻘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욕지거리가 나오는 것을 꼭 참는다. 여기서 대들어 봤자 자신만 불리해질 뿐이다.

"이제와서 무슨 용무야? 링에 오르는건 관뒀어!"

경계하는 오리에에게 이세시마가 서류를 하나 내민다.

"이거 뭘거 같아?"

서류에는 오리에의 부재로 취소된 시합의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오리에가 모르는 시합의 내용까지, 그 금액은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이, 이런건 말도 안돼! 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

"연락은 했어. 일방적으로 무시한건 너잖아? 서면교부란에도 사인했을텐데. 네 계약서에도 제대로 기재된 내용이야."

"웃기지만, 이 사기꾼! 못해먹겠네 돌아가겠어!"

오리에가 사무실을 나서려하자 남자들이 입구를 막아선다.

“웃..!”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는 계집애네.”

이세시마가 다가와 다른 한장의 계약서를 오리에에게 내민다.

“뭐야 이걸..”

네코노아나의 빛을 진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네코노아나에 구금되어 선수로써 링에 올라야한다는 일종의 종신계약서. 거기엔 어디선가 본적 있는 익숙한 서명도 있었다.

“보이지? 네 보호자의 서명.”

“누가 이런걸..!”

본적 없는 날인. 분명 아버지는 애인을 몇 명 두고 있었지만... 설마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나도 모르게 호적을...? 대체 누가...? 크..! 계약이야. 모든게 계획된 거였어! 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한 오리에가 몸을 날려 사무실에서 벗어나려하지만 입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남자들에게 붙들려버린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고.. 우웬!”

남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치는 오리에의 배에 이세시마의 주먹이 꽂힌다.

“부웃..우으윽!!”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불의의 일격. 맞은 곳이 좋지 않았는지 오리에는 금방 실신할 듯 눈이 뒤집히며 가랑이 사이에서 오줌이 줄줄 새어나와 바닥이 더럽힌다.

“치, 더럽게. 여전히 보디가 약한 모양이군. 정말 발전이 없는 계집애네.”

“아웃...! 우으...”

보디를 얻어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목 뒤로부터 따끔한 감촉이 전해지더니 시야가 점점 어두워진다.

‘제길.. 제기일..’

“지금 기회에 꿈이라도 잔뜩 꿰두라고. 넌 이제 악몽을 꿀 여유조차 없을테니까.”

이세시마의 말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감각을 끝으로 오리에의 의식은 끊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오리에에는 내리쬐는 강한 불빛에 눈살을 찌푸린다.

“윽..! 여긴...”

눈을 뜬 오리에가 있는 곳은 네코노아나의 지하복싱링 위. 어느새 코스튬이 입혀져 손이 압박되는 감촉에 양손을 들어올리면 복싱글러브가 끼워져있다.

'지하링? 어느틈에..'

무언가 몸에 조치를 취해놓은게 아닐까 몸을 점검해보면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나 방금 잠에서 깨 나른해져 있는 몸은 컨디션이 좋다곤 할 수 없었다.

"청코너! 전적 6승2패. 전 슈퍼루키. 유즈하나 오리에!"

"어딴다가 이제 나타난거야?" "네년 땀에 손해가 얼마나 알아?" "뒤통자버려!"

'큭! 시끄러운 돼지들이.. 니들 따위 어떻게되든 내가 알 바야?'

"홍코너! 전적 9승10패. 리틀피기 후지나카 치에코!"

중계진의 멘트에 반대편 코너를 의식하면 상당한 체지방률의 뚱뚱한 선수가 보인다. 공이 울리기 직전 링 중앙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다.

'응? 이 녀석, 어디선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낯익은 얼굴. 상대선수가 오리에를 살피더니 휘파람을 분다.



"이번에 복귀한다는 퇴물이 있다길래 누군가했는데 선배님이셨다니. 보디를 꽃아넣는 폼이 흑시나 했는데 이걸 행운이네요."

"기억났어. 연약한 하급생 뺨이나 뜯던 그 일진이잖아? 또 배에 한방 얻어맞고 실려나가고 싶나보지?"

치에코가 오리에의 눈 앞에서 위협하듯 자신의 양 주먹을 부딪힌다.

"훗, 배 얻어맞고 실려나가는 게 과연 어느쪽인지. 오늘 기회에 확실히 알려드리죠."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공유 자제부탁드립니다.